

통(通)성경 가정예배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재광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0년 5월

Copyright © 2020 Jaekwang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ong Bible Family Worship

Jaekwang Kim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bout the way children grow up in faith through the combination of Tong Bible and Family Worship. There are several studies on the importance and benefits of family worship. Many churches recognize that the education of faith in the church once or twice a week is not enough, but that it is an important role of the church to build a family with faith through parents who face children in their daily lives.

That is why parent education and seminars are being held in the church to nurture children's faith. There are also many studies on how to offer Family Worship. The key to Family Worship is to point God's Word to children at home.

However, there is few research on how parents should teach their children and how they can continue to practice Family Worship in home. In this paper, we examine what Family Worship is, what history it has, and what it looks like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rough this, we will look at the necessity of Family Worship and as well as how great the biblical grounds and benefits. Next, we will look at Tong Bible. When you read the Bible with Tong Bible, you can connect individuals, homes, and nations, and You can see time, space, and humans as a whole Bible. Let's take a look at the advantages of reading Tong Bible. Every Christian knows the importance of reading the Word, but reading the Word every day is not easy. So Byeong-ho Cho divided the Bible into 7 tracks, 20 yards, and 40 lessons for one reading, making it readable 365 days a year. With

this, you will be able to read the Bible once a year if you are faithful to your Family Worship for one year.

This paper presents how parents can teach their children the God's Word through Family Worship by combining Tong Bible and Family Worship. It also shows that as a way to continue Family Worship, questions about the Bible's yearly reading and the Word can be a motivation to continue Family Worship as well as the Holy Bible.

This paper will be of great help to families who want to offer a family service but do not know what to do. Also, through the Family Worship of Tong Bible, it will be beneficial to establish faith-based training based on the Word of God as a daily habit.

국문초록

통(通)성경 가정예배

김재광

한국, 서울

본 연구는 통성경과 가정예배의 결합을 통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가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다. 일주일에 한두번의교회에서의 신앙교육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매일 삶에서 마주하는 부모를 통해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많은 교회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세미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핵심인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한 가정예배를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예배가 무엇이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가정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를 통해 가정예배의 필요성과 더불어 성경적 근거와 유익이 얼마나 큰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통성경에 대해서 알아본다. 통성경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연결해 볼 수 있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성경 읽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말씀 읽기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조병호는 통성경으로 1독을 위해 성경을 7개의 트랙과 20개의 마당 그리고 40과로 나누어 365일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통성경으로 1년

동안 충실히 하게 된다면 성경을 1독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통성경과 가정예배를 결합함으로써 어떻게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지 제시한다. 또한 가정예배를 계속 이어갈 방안으로 성경 1년 1독과 말씀에 대한 질문이 통성경 뿐만 아니라 가정예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통성경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둔 신앙 훈련이 매일의 습관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목 차

감사의 글	ix
표 목차	x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방향성	3
II. 가정예배의 성경적 배경	4
가정예배의 정의와 역사.....	7
성경의 가정예배	12
III. 가정예배의 유익	18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음	18
소통의 장으로서 가정예배	19
지혜가 자라남	20
교회학교 역할 강화	23
가정예배 지침서에 나타난 유익	24
IV. 가정예배의 실제	26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기	26
가정예배의 순서	30
가정예배에서 자녀의 역할	32
V. 통성경과 가정예배	34
통성경의 성경적 이해	34
통성경과 가정예배의 결합	38

통성경 가정예배의 지속성	41
질문을 통한 통성경 가정예배	44
VI. 통성경 가정예배의 구조	51
통성경 가정예배로 1년 1독	51
통성경 가정예배의 내용	55
통성경 가정예배의 진행	57
VII. 통성경 가정예배 분석	60
통성경 가정예배의 실제	60
통성경 가정예배 인터뷰	64
통성경 가정예배 인터뷰 답변	66
통성경 가정예배 인터뷰 분석	77
VIII. 통성경 가정예배 평가	82
통성경 가정예배의 장점	82
통성경 가정예배 평가 및 결론	85
참고문헌	90

표 목차

<표1> 배우는 곳에 따른 지식과 지혜의 차이	22
<표2> 어려서부터 큰 그림을 그린 사람들	28
<표3> 가정예배 진행 순서	32
<표4> 성경의 7트랙	39
<표5> 성경의 40개 과	40
<표6> 40개 질문	46
<표7> 통성경 가정예배를 위한 이벤트.	52
<표8> 1년 1독 통성경 읽기.....	53

감사의 글

장신대 학부 2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신대원 졸업 후에도 계속 기독교 교육에 매진하면서 교육학 석사 과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앞으로의 주역인데 이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러한 바람 가운데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의 논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성경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조병호 박사님을 통해 성경을 더 깊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정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통성경이 갖고 있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병호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 자녀와 함께 통성경 강의를 들으며 성경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지 알게 되었고 말씀을 읽는 재미가 더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이 있기까지 좋은 통찰력과 지도를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늘 힘을 다해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내용을 배워가는 기쁨이 컸고 성경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들을 갖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목회와 학업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빠를 늘 응원해준 세 자녀들과 늘 곁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제 I 장

서 론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필자의 어린 시절 신앙에 대한 여러 추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매주 드리는 부모님과 가정예배였다. 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을 나가셨다 저녁에 들어오셨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가정예배를 빠지지 않고 인도하셨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아직도 쫓가에 경건하게 말씀을 읽는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로 가득 찬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간구의 기도가 들리는 듯하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기에 30여년이 지난 지금 필자의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다섯 식구의 가정예배가 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교회학교 교역자로 서게 되었지만 지금의 교회학교의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음을 보게 되었다. 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예배는 이제 옛날 추억의 이야기가 되었다. 교회학교에 예배드리러 아이들과 청소년이 오지만 부모의 강요와 습관으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심지어 예배 중 잠을 자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하고, 핸드폰을 만지고, 게임을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보다는 하나의 행사처럼 드러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특히 시험기간이 되면

학원 스케줄로 인해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교회 중직자의 자녀이지만 부모의 신앙이 이어지기 보다는 부모가 사정을 해야 예배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한 해 동안 얼굴을 보기도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비단 필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더욱 심각한건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 더 이상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내 신앙이 아니었기에, 강요가 줄어들고, 의무감이 희미해지며 다른 세상의 일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점점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신앙의 가문을 계속 이루며, 하나님께 평생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하며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할 여러 예배와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실시했다. 각종 세미나와 예배 프로그램들을 놓치지 않고 들었고 직접 교회학교 현장에 접목하며 나름의 노력들을 해왔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다. 첫째는,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와 일년에 한 두 번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로는 아이들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와 신앙의 토대를 심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앙의 토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려서부터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자라나는 말씀을 묵한하며 자라나는 자녀의 신앙은 잠언 말씀처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았다. 앞서 말한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시간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신앙의 선배이자 교사인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이야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토대가 되는 시간이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필자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에 관심을 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현장에서의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정예배야말로 현재 교회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며 더 나아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길임을 이 논문을 통해 얘기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연구 범위

본 논문을 통해 먼저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가정예배가 무엇이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가정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며 가정예배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가정예배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성경” 읽기 방법과 결합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성경이 무엇이고 가정예배와 결합되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녀들과 함께 매일 통성경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고, 질문으로 “통성경” 말씀 읽기를 진행해 신앙 교육의 효과와 흥미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성경 가정예배를 드린 가정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가정예배에 통성경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제 II 장

가정예배의 성경적 배경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특히 그 중심에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인한 교회교육의 문제가 있다. 실제 통계상에서도 예장 통합 측 교단에서 조사한 교회학교 학생의 숫자가 2010년 이후 10년 동안 17만명이 감소했고, 아동부의 경우 41%나 감소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의 비율도 34%나 되고, 특히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의 비율도 43%에 이른다.¹ 또한 교회의 노령화 비율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 자리를 채워 나갈 교회학교 숫자도 줄어들고 있기에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의 현실이 “유럽과 같이 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에 따른 부서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특화된 신앙 교육을 진행하며 각종 수련회와 성경학교, 특별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을 모으고 신앙 훈련을 하지만 그 현장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 느낀 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부서 전도사나 교사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부모다. 특별한 시간을 통한 집중

¹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31> (2020년 1월 22일 접속).

훈련이 분명 성과가 있지만 매일의 삶에서 행해지는 훈련에 비하면 부족하기 마련이다.

교회 안의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경을 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왜 매일 만나는 최고의 소그룹 단위인 가정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단위인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예배야말로 신앙이 전수되는 가장 좋은 장일 것이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92.8%가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아예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가정은 33.4%이고 연중행사로 드리는 가정이 36.8%이다. 나머지는 한 달에 1~4번 드리는데 22%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더구나 교회생활에 열심이고 기도에도 열심이다. 하지만 가정예배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돌아보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가정예배 시간을 잃어버렸다.²

칼빈은 가정에서 종교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종교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목회자가 해야 한다고 했다. 부모를 통해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나야 교회 안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으로 가르쳐도 가정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자라나는 아이의 신앙 교육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² 유혜무 외 7인 공저,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생명의 양식, 2018), 52.

깨닫고 부모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회와 가정의 연계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실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지난 2019년 2월 25일에 제1회 “유바디 컨퍼런스”가 열렸다. 대표인 박상진은 교회 안의 세미나를 통한 부모교육이나 일시적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교구를 지금까지의 지역이나 연령대로 편성하던 것을 이제는 교회학교의 자녀들 중심으로 교구를 재편성해야 함을 주장한다.³ 예를 들면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교구를 이루고, 교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앙교육과 상담등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갈수록 교회와 가정이 자녀 신앙 교육에 연대해 나가며 부모를 신앙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지도자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 교육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전도와 찬양대 등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자녀 신앙 교육의 역할을 잘 하도록 격려하지 않고 교회로만 부르면 신앙 전수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주일에 한번 공과 시간 30분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이것이 평생의 신앙 습관이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가정에서의 부모를 통한 신앙 훈련이며 최고의 장이 바로 가정예배 시간이다.

³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http://www.cserc.or.kr/sub2_6_1 (2020년 1월 22일 접속).

가정 가정예배의 정의와 역사

가정예배의 정의

자녀는 부모의 재산도 소유도 아니다.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이 자녀이다. 이러한 자녀를 20여년 동안 부모라는 이름으로 맡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책임지고 신앙으로 길러가는 것이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기에 부모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이끌어 가야 한다. 학교와 학원과 교회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면 안된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이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 이를 기록한 부담 자녀 양육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가정교육의 임무를 국가에 떠넘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대는 더 이상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인본주의, 계몽주의, 가치의 상대화, 무가치주의의 세계관을 삶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⁴

부모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있다. 자녀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부모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가정예배 시간이다.⁵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⁴ 에버하르트 플라테, *기록한 부담 자녀양육*, 강미경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2), 14-15.

⁵ 도널드 휘트니, *오늘부터, 가정 예배*,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23.

알렌산더 제임스는 “가정 예배는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가족들이 준수해야 할 가정의 의무이다.”⁶고 정의한다. 그의 정의처럼 가장 간단하게 가정 예배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예배의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때 부모가 예배를 이끌어가며 자녀들이 참여함으로 신앙 전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가정 예배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기에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생명이요, 삶의 내용이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행복한 보금자리요, 예배하는 특권과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이스라엘의 가정을 살펴볼 때 그들의 가정예배는 곧 생활이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⁷

가정예배의 역사

구약의 전통 가운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가정예배를 드렸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 전에 술이 달린 예복을 입고 기도와 찬성과 성경 낭송의 순서를 가진다. 제일 먼저 아침 축복 22개, 제물 관련 성경 봉독, 찬송, 웨마(신6:4이하) 낭독, 기립기도, 간구, 토라와 선지서 낭독, 마지막으로 아침 기도로 마친다. 정오와 저녁 기도는 아침 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진행한다. 이후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따라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이나 회당에서도

⁶ Alexander. James W,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임원중 역 (서울: 미션월드, 2003), 11.

⁷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510.

기도회를 가졌다.⁸ 이러한 유대인들의 규칙적인 기도의 전통은 신약과 교회사에도 전해졌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200년대에 나온 「사도규정」에는 아침 기도문과 저녁 기도문과 식사 기도문이 나온다. 또한 2세기 교부 터툴리안(160~225년경)은 신자들 간의 결혼에 대해 이런 글 가운데 가정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한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굳건히 해준다. 누가 더 운치 있게 읊어 주님을 찬양하는지 보려고 서로 시로 노래하고 찬송을 부른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보고 들으며 기뻐하신다.⁹

이처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함께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에서의 예배는 자녀들에게 까지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 교회로 시작한 초대 교회는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렸기에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후 수도원 중심의 기도회가 교회사에 등장했다.¹⁰ 수도원에서 주로 시편을 암송하여 낭송하는 방식으로 규칙적인 기도회를 가졌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기도회는 주로 합창으로 구성되어, 3개의 수도사 합창단이 연이어 찬양을 부르는 찬양기도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런 동서방교회의 전통은 폐단이 되어 일반 교인들이 이런 기도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가정에서의 예배와 기도회도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수도사와 사제들이 종교적 행위를 대신하고 성도들은 수행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수동적인

⁸ 유해무,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23.

⁹ 휘트니, *오늘부터, 가정 예배*, 38.

¹⁰ 유해무,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24.

위치에 있었다.¹¹

이후 종교개혁의 전통 가운데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마틴 루터는 가정예배의 실행을 강조했다. 만인제사장직에 근거하여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신앙과 기도의 중요성을 문답방식으로 가능한 가장 쉽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들은 이를 잘 경청하고 마음으로 배워 믿음과 사랑을 함양해야 했다. 루터는 이를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소교리문답서와 성인 초신자의 세례교육서로 대교리문답서를 같은 해 (1529년)에 작성했다. 그는 성인들의 성경과 교리 지식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탄식하면서 자신들의 문답서들을 계속 사용하여 믿음의 지식을 증진할 것을 기대했다. 특히 가장은 자녀들이 배운 바를 매주 한 차례 확인하고 자녀들의 지식이 부족하면 신실하게 배우도록 훈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²

종교개혁자 칼빈은 언약에 기초해 유아세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통한 신앙 교육을 통해 이후에는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도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율법의 준수를 가르쳐야 했기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

종교개혁 당시 매일 미사를 단순화시켜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다가 17세기 들어서에는 이보다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 경건회를 갖게 하였다.

웨스트민스터고백서는 21장에서 가정예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¹¹ 유해무,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24.

¹² Ibid., 25.

현 복음 시대에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으며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매일 가정에서나 은밀하게 홀로, 그리고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¹³

고백서는 공예배와 별도로 매일 경건생활과 가정기도회의 준수를 고백적으로 선언한다.¹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신앙고백을 완성한 때는 1647년인데 그해 8월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정예배를 매우 중시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자매편 문건인 「가정예배 모범」을 제작했다. 총 14항으로 된 이 지침서에는 가정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가정예배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 가정예배를 이끌어야 할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법 등이 항목별로 수록되어 있다.¹⁵

일찍이 한국교회 선교 초기 때도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가정예배는 도덕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즉 우리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임을 드러내는 특징적인 현상이 바로 가정예배이며,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은 우리 자녀들과 집 안이 진정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가정예배에 대한 정신을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4장 예배의 분류 8항에서 가정기도회와 개인 기도생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성도들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¹³ Ibid.,27.

¹⁴ Ibid.,27

¹⁵ 휘트니, *오늘부터, 가정 예배*, 40.

¹⁶ 신형섭, “가정예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교육교회*, 2019년1월11일.

경배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¹⁷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정예배는 부모의 책임 하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지는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배와 더불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가정예배는 성경적 배경 가운데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경의 가정예배

성경에는 가정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서 찬양 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매일 삶을 영위해가는 가정 안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가정 예배이다. 도널드 휘트니는 스펀전의 말을 인용해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내가 믿기로 이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들 중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명문화된 계명은 없어도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과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며, 앞서간 성도들의 모본을 통해서도 적극 권장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이상한 모순이 됩니다.¹⁸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이를 위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¹⁷ <http://new.pck.or.kr/law.php?sca=제4편%20예배와%20예식> (2020년 1월 22일 접속).

¹⁸ 휘트니, *오늘부터, 가정 예배*, 18-19.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19:5-6)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잘 지켜야 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육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되며, 이러한 관계가 대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중요한 책임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었고, 이 교육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다. 말씀 교육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근원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곳이 신명기의 쉼마 본문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 11:19-20)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 교육은 단시간이나 단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일차 책임자는 부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 안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정예배다. 이것은 단순히 하면 좋겠다는 권면의 의미가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이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의 가정예배

성경 안에서 가정 예배의 모습들을 여러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로 노아를 살펴보면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드린 예배는 분명히 가정 예배였다. 홍수가 끝나고 땅에 가득한 물이 말랐을 때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창8:20) 가족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둘째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와 의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를 위해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어져야 했다.¹⁹

¹⁹ 창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를 위한 중요한 시간이 가정예배가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족장들은 모든 들판이나 광야와 같이 가정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지역에서 제단을 쌓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창 12:7) 이와 똑같은 일이 아이와 벤엘 사이의 골짜기에서도 있었다. 아브라함을 뒤이은 이삭은 우물로 인한 다툼으로 끝에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창 26:25) 이삭 이후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야곱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창 35:2) 가족 모두가 정결하게 한 의식을 마친 후 벤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야곱이 쌓은 단의 이름은 ‘엘벤엘’로서 (창 35:7) 그 뜻은 ‘벤엘의 하나님’이다.²⁰ 이처럼 종교 의식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이어 가족 대대로 전수되었음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창 18:19)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널드 휘트니는 다양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가정예배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도 마찬가지다. 욥은 자식들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²⁰ 제임스 알렉산더,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2003), 14.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 1:5) 구약 시대 당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가정 예배를 드렸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지라도 자신과 자기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했다.”²¹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가정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음을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고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드린 예배를 통해 신앙이 자손 대대로 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약의 가정 예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한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6:4)고 말씀한다. 언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시간은 가정 예배 시간이다. 차 안에서나 거리에서나 상점에서 등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들은 어쩌다 주어지는 순간들이다. 신앙 교육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이것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의 자격 요건에도 이를 중요한 항목으로 얘기하고 있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딤후전 3:4~5) 감독이 어떻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²¹ 휘트니, *오늘부터, 가정 예배*, 25.

있으며 어떻게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도널드 휘트니는 “아버지가 인도하는 꾸준한 가정예배야 말로 자녀를 ” 주의 교훈과 훈계로 “ 양육하는 가장 확실하고 측정하기 쉬운 최선의 방법이다.” 고 말한다.²²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기도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남편들이 나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스펀전은 이 구절에 대해 “가정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는 데는 이 본문이 가장 제격입니다.”²³고 얘기할 정도였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 배경을 살펴보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였다. 자녀들 또한 부모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자라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복을 주실 때 가족 구성원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온 가족에 미치며 이것이 자녀들에게 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²² 휘트니, *오늘부터, 가정 예배*, 32.

²³ Ibid., 33.

제 III 장

가정 예배의 유익

가정 예배가 주는 여러 가지 신앙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은 기도생활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의 감사한 일을 나누며 이에 대한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자녀들 또한 부모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기도의 학교라고도 할 수 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신앙이며 이러한 신앙의 전수는 부모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특히 가정에서의 예배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하셨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할 사람은 바로 자녀들이며 부모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정 예배의 가장 큰 유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예배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음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 살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길 모든 부모가 바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녀가 받게 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28:1)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자녀들의 인생에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에 대해 조병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온갖 지혜를 다 모아 만든 획기적인 발명품이나 어떤 화려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 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뿐입니다.²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지혜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복으로 주셨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며, 그 안에서 예배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소통의 장으로서 가정예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인 가정예배는 가족이 소통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신앙에서 하나 되는 중요한 시간이다. 부모는 자녀의 어려움과 잘함을 알고 위로와 격려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의 기도제목을 통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부모의 삶의 어려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사회 안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²⁴ 조병호, *통하는 영적 예배* (서울: 통독원, 2018), 22.

감당하며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조병호 박사는 자녀가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한다.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입맛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의 언어를 배웁니다. 또한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한다면, 그 자녀는 당연히 훌륭한 사회인으로 잘 자랄 것입니다.²⁵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배우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 이러한 소통의 장, 배움의 장이 가정예배 시간이다. 앞서 조병호가 말한 것처럼 부모가 체계적이고 정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한다면 가정예배의 시간은 훌륭한 신앙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가정예배를 마무리 할 때 하루를 마감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와 축하와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다.

지혜가 자라남

아이들의 어린 시기는 가장 호기심이 많고 궁금하면 참지 않고 바로 물어보는 시기이다. 질문을 갖고 물어보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예배의 시간에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성경의 내용을 나누는 것은 자녀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될뿐 아니라 자녀들의 지혜가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보테악은 유대인이 수많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뛰어난 교육의 결과를 보이는

²⁵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40-41.

것은 가정에서의 대화로부터 시작되며 그 핵심은 호기심 가운데 나오는 질문이라고 말한다.

성적은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저 한 가지 잣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지적인 호기심이 끼치는 영향력은 성적에 비해 100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또한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잃으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 모든 관계는 호기심이 생명이며, 알고 싶은 욕망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호작용에 바탕이 된다.²⁶

자녀들의 왕성한 호기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는 가정예배는 자녀의 신앙에 유익하며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관계에도 유익하다. 자녀들이 궁금해 한 것을 부모가 찾고 대답해 줌으로 자녀는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하고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바로 이끌어 가게 되어 가정예배의 질문과 답변은 서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테악은 어려서부터 질문하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면 그 미래의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요즘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 기껏 대화를 나눈다 해도 다루는 내용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깊게 파고드는 습성을 길러 준다면 아이의 미래는 180도로 바뀔 것이다.²⁷

가정 예배는 의무와 형식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 드리며, 가족이 서로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배움에는 지식과 지혜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주입식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 시간에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될 때

²⁶ 슈몰르 보테악, *유태인 가족대화*, 정수지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78.

²⁷ *Ibid.*, 85.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⁸

<표1> 배우는 곳에 따른 지식과 지혜의 차이

	지식	지혜
배우는 곳	학교	가정
내용	단순하다. 쉽게 잊는다. 이론적이다.	다양하다. 좀처럼 잊지 않는다. 삶의 실제적이다.

교회 성경 공부는 제한된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을 가르쳐야 하기에 지식 전달 위주로 마치기 쉽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통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실제적이며 좀처럼 잊지 않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에 말씀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지혜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에 소중한 자산이 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119:130)

시편 말씀처럼 가정예배의 말씀 시간은 지성을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직접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나 지혜나 깨달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즉,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록된 성경>뿐입니다.²⁹

²⁸ 함성환, *현대교육과 가정교육* (서울: 그루터기, 1984), 102-3.

²⁹ 조병호, *성경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8.

박상진은 또한 성경적 신앙교육에 있어서 ‘여경지근’의 원리를 얘기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1:7의 말씀을 줄인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 말로 지식의 근본에 이르는 것이며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교회학교 역할 강화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의 신앙 교육이 자리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학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변화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역할이 충분히 감당이 되면 공과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다른 활동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부서에서 예배가 그동안 공과를 중심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면 교육의 역할을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감당을 하기에 좀 더 예배와 예전에 집중할 수 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 공과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교육부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드림의 예배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공동체 내의 친교와 절기 교육 중심으로 교육부서 모임을 갖을 수 있다.

그 동안 반교사의 주요 역할이 교회학교 예배 후 공과 시간 또는 소그룹 시간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설교와 연계해 진행하기도 하고 협동학습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일주일 중 하루

24시간 중 30분이라는 한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교사는 공과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기에 일차적 신앙 교육의 책임을 부모가 감당하고 교사는 아이들의 신앙적 멘토의 역할을 하면 된다. 교사는 부서 소그룹을 이끌면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신앙 안에서 교제와 상담과 기도의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 일차적 신앙 훈련을 가정 안에서 받을 수 없는 아이의 경우 반을 따로 편성하고 그 반의 특성에 맞게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르침의 영역이 교회학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를 가정과 함께 감당함으로 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교육을 넘어 다양한 교회의 역할들을 교회학교 내에서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와 가정이 더욱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자녀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가정예배 지침서에 나타난 유익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 인식하고 16세기말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목사가 심방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으로 가정마다 가정 재단을 쌓도록 독려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가정예배 지침서’³⁰가 말하는 가정예배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³⁰ 박신웅, *가정예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생명의 양식, 2018), 111-12.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 전체에 영적인 유익을 준다.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의 정체성과 세상의 염려와 압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유익이 있다.

(2) 가정예배는 교육적 유익을 준다. 지침서에 따르면 당시의 상황은 회중들 앞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금기되어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성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성경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고민하고 나누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익을 갖게 되었다.

(3) 가정예배는 가정의 영적 책무를 분명히 해 준다. 사회가 산업화가 되면서 장로교 남성들이 가정을 떠나 일에 몰두하면서 가정예배가 쇠퇴하였지만 가정예배 지침서는 이러한 상황에 다시 가정들의 역할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다.

(4) 가정예배는 주일 예배의 은혜를 지속시키며 주일학교 교육에서 주지 못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게 한다. 가정예배는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된다. 또한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또한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 IV 장

가정 예배의 실제

가정예배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고, 교회의 전통과 역사 가운데 계속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 구성원 모두의 신앙의 성장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유익한 가정예배를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녀의 시기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움의 과정에 들어간다. 가정 예배는 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일수록 더욱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 교육이 잘 자리 잡고 그 영향이 큰 시기이다. 그래서 성경도 어린 시절의 자녀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세상의 어떤 것이 아이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기 전에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이어진 가정교육은 자녀들이

커서도 어렸을 때 배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지키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된다. 이러한 예를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를 조병호는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 제국은 그들의 정책에 따라 각국에서 끌어들인 포로들 가운데 특히 머리 좋은 청소년들을 선발해 왕궁에서 교육시켰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교육시켜 그들의 머릿속을 바벨론 제국으로 가득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4명의 청소년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청소년들에게는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둔 반면, 이상하게 유대인 청소년들은 바벨론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머리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그들의 어린 시절을 이스라엘에서 보내면서 각 가정의 <Family School>에서 충분히 나라와 민족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Family School>은 ‘만 5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이 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 제국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킨다 해도 그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³¹

또한 다른 책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자녀가 만 5살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를 기르다 유치원과 학교만 보내도 그때부터 아이는 세상과 정면승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길 힘일까요? 지식, 재물,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작은 무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³²

나라가 멸망 했어도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은 그들의 평생 신앙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5살 즉 글을 읽을 수 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말씀 가운데 평생

³¹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82-83.

³²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2), 17.

거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 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가정이야 말로 역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공동체이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강하며 오래 감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은 인물들이 나온다.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바벨론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쓰임 받은 다니엘과 에스겔, 또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받아 목회자로 활동한 디모데 등이다. 이들의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훈련 받아 쓰임 받은 이유는 부모를 통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2> 어려서부터 큰 그림을 그린 사람들³³

From Infancy: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만5세부터, 어려서부터)	
1. 이삭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2. 요셉	청소년 요셉의 애굽 노예 생활
3. 모세	애굽 왕자 모세, 히브리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4.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나실인 서원, 엘리의 교육
5. 다윗	이새의 아들, 소년 다윗의 고백 -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6. 솔로몬	약 20세의 기도 - '좋은 작은 아이라'
7. 예레미야	약 20세에 사명을 받음
8.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 바벨론 포로 때 뜻을 정함
9. 세례요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³³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 2*(서울: 통독원, 2017), 462.

10.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11. 바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12.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조병호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3,500년 전 모세가 제안했던 <Family School>은 3,5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가장 윤행한 교육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들과 제국들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들은 건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고, 영원히 가정은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가정에서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면 제국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21세기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산입니다. 그리고 자녀, 그 이름은 큰 산을 담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입니다.³⁴

이렇게 중요한 가정 예배는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 그래서 조병호는 “5세 아이에게 성경 통독을 가르치고 10세 때 성경의 역사를 알고 15세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설명하며 20세에는 구속의 의미를 강의한다면 그 가정, 교회, 사회는 어떨까?”³⁵라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을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굳게서는 세대로 설 수 있음을 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작해 가정 안에서부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한국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³⁴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144.

³⁵ 백상현, “목회,” *국민일보*, 2017년12월12일.

가정예배의 순서

가정예배를 진행하는 순서들은 다양하게 있다. 그러나 통성경을 가지고 진행되는 가정예배에서는 성경을 읽는 시간에 대해 비중을 높이고 읽기 전후에 질문과 답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³⁶ 단순히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질문과 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가정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 또한 그 시간을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한 시간으로 알고 따로 시간을 정하며 함께 참여해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참여할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부모이며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리고 본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 중요하다.

(1) 모이기

가정 예배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정하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한다. 가급적이면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고 식탁이나 거실의 테이블에서 하는 것이 좋다.

(2) 찬양

돌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을 선곡해 부를 수도 있고 부모가 미리 질문 및 답과 관련된 찬양을 선정해 부를 수도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녀들은 찬송가나 다양한 찬양을 접할 수 있고 공 예배 때에도 잘 따라 부를 수 있는 연습의

³⁶ 이 논문은 조병호의 통성경을 가정예배에 접목해서 드리는 것에 대한 연구로 통성경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논할 것이다.

시간이 될 수 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열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3) 질문하기, 말씀 읽기

가정 예배 때 나눌 말씀은 읽기 전 먼저 말씀과 관련된 부모가 질문을 던진다. 필요에 따라 질문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도 좋다.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할지 생각하면서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는다. 가정 예배이기에 말씀을 읽을 때 정해진 분량을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는다.

(4) 생각 나누기

가정 예배의 생각 나누기 시간은 설교와는 다르다. 말씀을 읽기 전 들은 질문에 대해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돌아가면서 짧게 나누는 시간이다. 부모나 자녀나 말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를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을 통해 말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다. 또한 부모는 말씀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 통신학의 관점으로 말씀에 대한 설명을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³⁷

(5) 감사 제목 나누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잠시 돌아보며 그 가운데 감사한 일이나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는다. 친구와 재미있게 놀았던 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일, 반가운 누군가를 만났던 일 등 하루의 삶 가운데

³⁷ 조병호의 통숲 1권과 2권이 2019년에 발행되었다. 이 책을 활용해 가정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통신학의 관점으로 답해주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누며 가족이 함께 듣고 공감하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 한다.

(6) 기도하기

말씀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친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신앙의 가장이 하면 좋다.

<표3> 가정예배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비고
2분	모이기	정해진 장소와 시간
1분	찬양	찬송가
10분	질문하기, 말씀 읽기	통 성경에 따라
4분	생각 나누기	돌아가며
3분	감사제목 나누기 말씀 놓고 기도하기	돌아가며

가정 예배에서 자녀의 역할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가정예배에 대해 잘 모르고 어색하기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날짜를 정해서 자녀들이 예배 인도와 찬양 인도와 기도 인도를 맡을 수 있다. 자녀들은 자신이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여길 수 있다. 또한 참여자로만 있다가 직접 이끌어 가는 자가 되면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하게 참여할 것이다. 엄마 아빠가 있는 가족 안에서의 예배이기에 서툴고 어리숙 해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도 예배자로 함께 참여하고 싶지만, 가정예배의 모든 영역을 아빠, 엄마가 도맡아서 하니 자신들은 특별히 할 것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야 한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예배 순서 하나씩을 아이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서툴고 어리숙해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³⁸

통성경 가정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참여이다. 말씀을 읽은 후 말씀에 대한 자녀들의 질문과 생각을 듣고 나누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듣기만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가정 예배에 참여하고 자신이 예배자로 서고, 순서를 맡고 내가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자녀들이 통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질문할 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³⁸ 백홍영, *엄마, 아빠! 가정예배 안드려요?* (서울: 예키즈, 2015), 40.

제 V 장

통성경과 가정예배

통성경의 성경적 이해

통성경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주창한 조병호는 통성경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통성경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 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소리 내서 읽는 것이다.”³⁹

성경에는 대략 2,000여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있다고 조병호는 말한다. 시간을 살펴보면 ‘태초’로부터 시작해 인간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과 ‘끝’이 성경에 모두 들어 있다. 그리고 많은 절기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년의 시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의 시간을 비롯해 성경에는 많은 시간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이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중요한데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한 곳이고,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된 곳이기 때문이다.⁴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간, 땅에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족장인 이삭, 야곱, 요셉과

³⁹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11.

⁴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18.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가나안땅 정복과 분배를 이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 왕장 국가의 다윗과 솔로몬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그 안의 5,000여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와 거역한 자들로 나눌 수 있다.

조병호는 이런 성경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각각 별개로 보아서 안되고 반드시 통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좋은 예로 절기를 들 수 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임과 동시에 이 절기가 만들어진 이유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조병호는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게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 성경이라고 정의한다.⁴¹ 통성경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은 바로 성경을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모세의 예가 그렇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봄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한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 내에서 문제가 없고 마음이 하나였던 그 가정이 어린 모세를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⁴²

⁴¹ Ibid., 19.

⁴² Ibid., 20.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개인·가정·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이야기이다. 동시에 임신한 상태인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등록하러 고향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간 것과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로마가 제국을 했기 때문이다.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정확하고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⁴³

모세의 개인 이야기는 그의 가정 이야기 가운데서 전개되었고, 그의 가정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 성경을 단순히 하나의 토막으로만 읽으면 이해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통으로 읽을 때에 모세의 상황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현실이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로 함께 읽어 내려가야 하며 이것이 통성경이다.

조병호는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관계 맺고 있는 주변 나라와 세계정세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⁴³ Ibid., 20-21.

먼저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처럼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근간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다.⁴⁴ 제사장 나라는 다른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나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국인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기 때문이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수직적으로 아래에 두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12:2-3)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를 종으로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후 50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출19:5-6)

⁴⁴ 출애굽기 2장 20절.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제국의 통치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에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민족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통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성경을 알 수 있음을 조병호는 말한 것이다.⁴⁵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사용하셨는데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조병호는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이며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보고 그 안에 이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제국들의 이야기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통성경과 가정 예배의 결합

가정예배의 목적은 신앙의 전수이며,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인 가정 예배에 통성경을 접목해 말씀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다.

가정예배를 통한 신앙의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를 예배를 통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인

⁴⁵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27.

되심을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필요를 구하고, 매일 감사의 제목을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가정예배야말로 자녀들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최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가정예배 때 통성경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조병호는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서 가정 예배 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66권이 한 권인 성경 또한, 전체를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크게 7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공부하면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색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7개의 색이 합쳐져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인 성경 분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방법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통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⁴⁶

조병호는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나누었다.

<표4> 성경의 7트랙

트랙	성경
트랙 1	모세5경
트랙 2	왕정 500년
트랙 3	페르시아 7권
트랙 4	신구약 중간사
트랙 5	4복음서
트랙 6	사도행전 30년
트랙 7	공동서신 9권

⁴⁶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20.

각 트랙을 전체 주제에 따라 20개의 마당과 40개의 과로 나누었다.

<표5> 성경의 40개 과

마당	내용
1마당	하나님의 마음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3마당	만나 세대
4마당	신앙 계승
5마당	천년 모범
6마당	마음과 지혜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8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10마당	재건 공동체
11마당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13마당	한 영혼 사랑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20마당	미리 건네 받은 승리의 노래

조병호는 40개로 나누어진 과를 365일 동안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7트랙, 20마당, 40과를 365일 동안 매일 가정예배를 통해 읽어 나가면 통성경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1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경을 나누어 놓은 것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필요에 따라 구분해 놓았다.

<모세5경>의 분위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인 ‘제사장 나라 set-up’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인 제사장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 트랙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라면 두 번째 트랙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통치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라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트랙은 크게 구분되는 것입니다.⁴⁷

성경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지만 정작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는다. 더 큰 문제는 한편의 책인 성경 전체를 읽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통성경으로 1년 동안 충실히 하게 된다면 성경을 1독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 읽기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라야 한다. 세상에는 이들을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기에 성경으로부터 떠나기 쉽다. 이처럼 가정예배를 통해 통성경으로 성경을 읽어 가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 뿐만 아니라 성경을 1독 할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도함을 통해 가정이 하나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성경 가정예배의 지속성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에 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할 때에 이것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

⁴⁷ Ibid., 36-37.

습관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올리면 선물을 준다고 하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평생 지속되어야 할 예배이다.

통성경도 지속성에 있어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성경 전체를 1독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야 하며 내용도 한번에 다 파악하기는 단기간에 어렵다.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매일 꾸준히 읽어 1독을 하는 게 좋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그 갈망하는 것이 자신을 규정한다고 얘기한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갈망한다. 나는 무언가를 원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원한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 욕망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는 것이다.⁴⁸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다 보면 우리의 목적과 갈망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 형성을 위해서는 수많은 습관의 재형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수많은 무질서한 습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영성 형성이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중요한 소명 중 하나인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나라를 지향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에 몰입할 기회를 얻는다. 어린이들의 “유연한” 습관과 상상력인 기회이자 도전이다.⁴⁹

⁴⁸ 제임스 스미스, *습관이 영성이다*, 박세혁 역 (서울: 비아토르, 2018), 25.

⁴⁹ Ibid., 104-5.

신명기 6장의 웨마에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함을 얘기한다. 가정예배의 성패는 지속성에 달려 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계속해서 예배드릴 때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다.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성경 통독이다. 하루 한 절이나, 한 장이라면 내일이나 나중에 보면 되지만 성경 통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 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가정예배와 성경 통독이 합쳐지는데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조병호는 "통성경은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이야기로 보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 나아가는 것이 성경통독의 방법이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한 장에서 교훈을 얻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⁵⁰ 라고 했다.

부모가 매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매우 중요하다. 매일이라는 지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을 변화 시키는 큰 능력을 발휘한다. 날마다 경건하게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배우고 지속하게 될 때에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이다. 매일 성경을 읽기에 말씀에 무관심한 자녀라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 말씀 가운데 서서히 스며들게 될 것이고 자연히 그들의 삶에 말씀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정예배를 통해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고 나눔을 통해 조금씩 조금

⁵⁰ 조병호, *성경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29.

씩 그 말씀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이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매년 이어간다면 부분만을 볼 때는 알 수 없지만 통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병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사건만을 강조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순종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다른 면모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운 명령에 대해서도 믿음을 지켰던 순종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인물인 동시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집에서 기른 종들과 함께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사람이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배려와 겸손의 사람이었다. 모리아 산 사건만을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밖에 접근할 수 없지만, 성경통독을 통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조망하게 될 때에는 ‘믿음’, ‘용기’, ‘배려’, ‘순종’ 등의 다양한 관점이 등장할 수 있다.⁵¹

지속적인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토대를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얻을 수 있기에 통성경을 통한 가정예배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믿음의 가정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을 통한 통성경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부모와 함께 드릴 때 자녀들은 종종 성경에서 모르는 단어나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한다. 교회학교나 예배 중에는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⁵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75-76.

듣기 쉽지 않지만, 부모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이기에 부담 없이 부모에게 성경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함께 생각함을 통해서 부모는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자녀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며 이 과정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성경 안에 펼쳐진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 성경을 읽어 가면 수많은 질문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가정 예배 시간이야말로 아이들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질문하는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이 쌓이는 초석이 된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른이 될수록 질문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가정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답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찾아 감을 통해서 아이들은 신앙의 전수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가정 예배의 목적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주일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다. 가정 예배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며, 부모에서 자녀로 신앙이 전수된다.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정예배와 연계된 말씀의 통독을 질문을 통해서 읽어 나아갈 때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 말씀을 통독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속성을 자녀들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하며 이 즐거움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할 때 질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성경 또한 중요한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풀어가고 있다.

조병호는 성경을 보는 방식을 분석적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방식과 성경을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을 통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서구의 경전 읽기 방식은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방식 위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동양적인 성경 읽기 방식은 전체적인 성경 읽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함께 아우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²

그래서 통성경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분량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는 관점을 통해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고 답을 찾아 나가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병호는 그의 책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책에서 40개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펼쳐 나간다. 이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표6> 40개 질문⁵³

번호	질문
제사장 나라 - 성전과 제사장 시대	
1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는가?
2	왜 나라들이 많은데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가?
3	왜 제사장 나라인가?
4	왜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 으로 시작된 나라인가?
5	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인가?

⁵²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72.

⁵³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4-27.

6	왜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인가?
7	왜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인가?
8	왜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인가?
9	왜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한센병(나병)이 중요한가?
10	왜 제사장 나라의 위기가 있었는가?
11	왜 제사장 나라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직접 가르쳐야 하는가?
12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는가?
13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종 다윗’ 이라 부르셨는가?
14	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기도와 제사장 나라가 관련이 있는가?
15	왜 예루살렘은 되는데 단과 벧엘은 안 되는가?
16	왜 예후 왕은 앗수르의 블랙 오벨리스크에 굴욕 자세로 새겨지게 되었는가?
17	왜 웃시아 왕은 한센병(나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18	왜 선지자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징검다리인가?
19	왜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는가?
20	왜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주었는가?
21	왜 헬라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는가?
22	왜 알렉산드로스 안나이우스는 백성으로부터 올리브 나뭇가지로 맞는 모욕을 당했는가?
제사장과 제자 공존 시대	
23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가?
24	왜 하나님 나라인가?
25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으로 시작된 나라인가?
26	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인가?
27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인가?
28	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인가?
29	왜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인가?

30	왜 예수님께서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가?
31	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토록 화를 내셨는가?
32	왜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 출처와 성전 청결 문제를 연결시켰는가?
33	왜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만찬으로 바꾸셨는가?
34	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35	왜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교회와 제자 시대	
36	왜 베드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라고 말했는가?
37	왜 성전에서 교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는가?
38	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는가?
39	왜 할례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바울에서 끝났는가?
40	왜 예수님으로 ‘튜닝’ 되어야 하는가?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단순히 정해진 분량을 읽고 그친다면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갖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조병호의 책에 나온 질문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풀어갈 때에 ‘아하’ 라고 외치며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질문을 먼저 갖고 말씀을 들여다 본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이처럼 가정 예배 가운데 성경을 교재로 삼고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한다면 자녀들의 사고는 확장되고 지혜가 커질 것이며 세상 학문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질문하는 교육의 효과를 유태인의

‘하브루타’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⁵⁴ 유대인 가족이 어떤 생각을 갖고 대화하는지 “유대인의 가족대화” 라는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이가 낮은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나는 아이를 격려하고 더 큰 가치를 상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에게 성적은 하나의 평가 기준에 불과하다. 아주 제한된 평가 기준이지. 나는 성적으로 성공을 평가하지도 않고, 너희도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이거야. 너희는 지적 호기심이 있니? 너희는 알고 싶니? 내가 알고 싶은 건 ‘너희가 알고 싶어 하는가’ 야 지적 호기심은 바른 삶의 정수란다. 반면에 지적으로 나태하다면, 비유해서 말하자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지적 호기심은 크나큰 축복인 반면에 지루함은 엄청난 저주란다. 궁금해 하지 않은 사람들. 인생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과 욕구 부족에 점점 무더지지.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왜소해지고 지식도 줄어들어. 글자 그대로 움추러드는거야. 세상에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런 따분한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⁵⁵

질문을 통해 자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가정에서의 부모를 통한 예배야 말로 최고의 성경 학습 장소가 될 것이다.

아이를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질문과 토론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을 해야 하고, 생각 없이는 대답할 수 없다. ... 아이들은 질문이 많다. 그런데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아이가 무엇이든 궁금해할 때가 그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⁵⁶

가정예배에서 질문이야 말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를

⁵⁴ 유대인들은 세계인구의 0.2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3퍼센트를 차지하고 또한 유명 대학 교수의 30퍼센트라는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는 짝을 이루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다.

⁵⁵ 보태악, *유대인 가족대화*, 78.

⁵⁶ 전성수, *유대인 엄마처럼* (서울: 국민출판, 2014), 163.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그럴수록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공감과 창조적 상상력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질문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이지성은 “앞으로 교육의 방향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면서 해야 한다. 이 능력은 비유하면 ‘지혜’다.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을 쌓는 일이다. 인공지능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식과 기술을 축적한다. 인간은 이 두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⁵⁷”고 진단한다. 가정예배에서 질문을 통해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질문을 통해 창조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기 마련이다.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공부 시작된다. 아이들의 강한 호기심은 가정예배를 딱딱하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갖는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통성경으로 말씀을 보며 이때 얻게 된 답과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다.

⁵⁷ 이지성, *에이트* (서울: 차이정원, 2019), 129.

제 VI 장

통성경 가정예배 구조

통성경 가정예배로 1년 1독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으로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나눌 때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일 말씀을 읽는 훈련이 자녀들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이후는 자녀들이 먼저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할 것이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가정 예배로 잘 정착이 된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1년 1독 성경 통독이다. 통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따로 떨어진 66권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다. 하나의 책으로 매일 읽어 나갈 때에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가정예배가 정착되면 통성경을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매일 가정예배를 통한 말씀 읽기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부모가 먼저 알고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을 자녀들에게 설명해주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부모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자녀의 반응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말씀 읽기의 흥미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욱 집중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병호는 이를 위해서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과 20개의 마당으로 또 전체를 40개의 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365일 동안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매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분량을 읽어 나가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1년 1독을 할 수 있다. 특히 조병호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읽도록 하기 위해 연대기적으로 구성을 하였고 그 의미에 대해서 부모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가정예배를 통한 통독이 더 수월해 질 것이다.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1년 성경 1독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면 이를 이루기 위한 동기를 갖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처음 1독이 어렵지만 해를 거듭해 갈수록 체계적인 과정을 갖고 성경을 통독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가 깊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수준이 높아진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1년 1독을 이루기 위해 부모는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다. 가정예배를 통해 1독을 위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

<표7> 통성경 가정예배를 위한 이벤트

통독 횟수	가족 이벤트
1독	가평 성경통독원 방문
2독	세계성막복음센터 방문
5독	국내 성지 순례
10독	온 가족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정예배를 통해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조병호가 유튜브를 통해 매일 성경을 읽어 주면서 성경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본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다.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이 밀려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그때는 읽지 못한 분량을 넘어가고 다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읽으면 된다. 만약 그 분량이 많다면 건너뛴 후 매달 마지막 주말에 시간을 더 내어 읽지 못한 부분을 읽고 전체 흐름을 설명해 준다면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매일 말씀을 읽어나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 매일 통성경으로 읽게 하는 것이다. 매일 통성경을 위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8> 1년 1독 통성경 읽기

트랙	마당	과	통독
트랙 1 모세5경	1마당 하나님의 마음	1과 원역사	1-4일 창 1~11장
		2과 족장사	5~12일 창 12~36장
		3과 입애굽과 민족의 발아	13~17일 창 37~50장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4과 출애굽과 제국	18~24일 출 1~18장
		5과 세계 선교의 꿈 - 제사장 나라	25~32일 출 19~40장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33~42일 레위기
	3마당 만나 세대	7과 만나세대의 성장	43~57일 민수기
		8과 만나학교 졸업설교	58~70일 신명기
	4마당 신앙 계승	9과 약속의 땅 입성	71~78일 여호수아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79~86일 사사기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87일 룻기

트랙	마당	과	통독
트랙 2 왕정 500년	5마당 천년 모범	12과 미스바 세대 탄생	88~89일 삼상 1~7장
		13과 왕정의 시작	90~100일 삼상 8~31장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101~112일 삼하, 왕상 1~2장
	6마당 마음과 지혜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113~158일 왕상 3~11장, 잠, 아, 전, 욥, 시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6과 남북 분열 왕조	159~174일 왕상 12~22장, 왕하1~14장, 암, 호, 은
		1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175~196일 왕하 15~20장, 사, 미
	8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	18과 남유다의 쇠락	197~201일 왕하 21~23장, 습, 합, 나, 율
		19과 잠간의 징계	202~242일 왕하 24~25장, 램, 애, 읍, 대상, 대하

트랙	마당	과	통독
트랙 3 페르시아 7권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20과 포로민 설득	243~259일 겔
		21과 제국 변동의 밀그림	260~264일 단
	10마당 재건공동체	22과 성전 재건	265~275일 겔
		23과 성벽 재건	276~279일 느
		24과 고백과 침묵	280일 말
트랙 4 중간사 400년	11마당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25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26과 로마 제국과 중간사
트랙 5 4복음서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27과 예수님 탄생	281~289일 마
	13마당 한 영혼 사랑	28과 공생애 3년	290~295일 막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29과 마지막 일주일	296~306일 눅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과 십자가 승리	307~315일 요

트랙	마당	과	통독
트랙 6 사도행전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31과 열리는 제자 시대	316~319일 행1~13장

30년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20일 행 13~15:35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21일~325 행 15~36~18:22, 살전, 살후, 갈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326~334일 행 18:23~19장, 고전, 고후
	18마당 준비된 면류관과 남겨진 부탁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26~334일 행 20~26, 롬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42~345일 행 27~28, 엡, 빌
		37과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346~347일 골, 몬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348~350일 딤후전, 딤후, 딤후후
트랙 7 공동서신 9권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351~357일 히, 약, 벧전, 벧후, 유
	20마당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358~365일 요일, 요이, 요삼, 계

통성경 가정예배의 내용

통성경 가정예배의 핵심은 매일 지속성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핵심이 되는 말씀을 통성경으로 읽는 것이다. 이 논문은 통성경과 가정예배를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통성경으로 읽을 때 질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 통성경 자체가 시간과 공간과 인물을 결합해 읽는 것이며 이렇게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들을 통성경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자녀들에게 던지고 말씀을 읽으면 더욱 집중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성경 가정예배의 질문이 담긴 말씀 읽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조병호가 성경을 20마당으로 나누면서 각 마당의 중심 주제로 삼은 것을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⁵⁸ 예를 들면 창세기 1-11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삼았다.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시작할 때 “오늘 가정예배 때 창세기 1-2장을 읽을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질문하고 통독을 시작할 수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는 것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읽는 것은 전혀 말씀을 대할 때 깊이가 다르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되면 그 가운데 “좋았더라”고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조병호는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그 누구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만드시고 복까지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2장에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⁵⁹

창세기 6~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 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독하면서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병호는 이렇게 답한다.

쉴 새 없이 쏟아져 세상을 뒤덮는 빗방울들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래도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땀 흘림이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쓸어 내리고 새로운 출발의 씨앗이 됩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또한 방주 안에서 온갖 동물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는 데에도 많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⁶⁰

⁵⁸ 조병호의 통성경은 성경을 7개의 트랙으로 나누었고 그 트랙을 다시 20개의 마당으로 나누었다.

⁵⁹ 조병호, *성경 통독* (서울: 통독원, 2018), 33.

⁶⁰ *Ibid.*, 37-38.

이처럼 성경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이를 가정예배 통성경 시간에 제시한 후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과 생각을 나누면 된다. 통성경과 결합된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제시하고자 한다.

조병호의 성경 통독을 위한 20마당 중 창세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해 가정 예배를 위한 성경 통독용 교재를 만들어 보았다. 만든 가정 예배용 창세기 통독을 실제로 가정에서 해보고 인터뷰한 내용은 정리해 보았다.⁶¹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 질문 중 자신이나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 선택해서 질문을 읽고 생각한 다음 성경을 통독하고 이후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나누면 된다.

통성경 가정예배의 진행

365일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필자의 가정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이를 활용해 각 가정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해 예배드릴 수 있다. 그리고 가정예배의 진행 방법은 인터뷰를 요청한 다섯 가정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하였다.

1. 가정예배를 시작하기 전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예배를 언제 드릴지 시간을 정하세요.

예) 아침 7시, 저녁 8시 등

- 가정예배를 어디에서 드릴지 장소를 정하세요

⁶¹ 조병호, *통독1* (서울: 통독원, 2019), 10-173.

예) 식탁, 거실, 카페 등

- 시간 지킴이 역할을 할 사람을 한 명 정하세요

역할: 가정예배 시간 5분전 가족원에게 알리기.

집에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1시간 전에 알리기

가정예배 드릴 장소를 미리 정리해 놓기

2. 가정예배 준비하기

- 인도자는 함께 부를 찬송을 정합니다. (찬양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면 담당자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송가외 잘 모르는 찬양이라면 악보도 준비합니다)

- 가정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정예배 확인을 위한 탁상 달력을 준비해 주세요.

(탁상 달력은 가정예배를 드린 날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걸로 준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드린다면 한 달에 몇 번 이상 드렸을 경우 정해진 선물을 주면

좋습니다. 또한 1년 동안 가정예배 드림으로 완독하게 되면 받게 될 가정의

특별한 선물을 가끔씩 확인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3. 가정예배 드리기

- 질문: 찬양 후 오늘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인도자가 읽습니다. 그리고 한 명 정도 생각 나는 대로 간단히 답을 해도 좋습니다.

- 통독: 말씀 통독은 정해진 본문을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습니다. 몇 절씩 읽을 지는 인도자가 정합니다.

- 대답: 말씀을 읽은 후 질문에 대한 생각을 가족이 서로 나누고 인도자가 정리해주세요. 질문과 답변은 조병호 박사의 “통숲”을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 감사제목: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서 감사했던 일을 한가지씩 돌아가며 이야기 합니다.

- 기도: 돌아가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신앙 가장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신앙 가장은 기도 마지막에
가족이 모여 가정예배 드릴 수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매일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마친다.

통성경 가정예배의 핵심은 빠지지 않고 매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 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하고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으로 바로 서며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늘 기도하고 구하며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제 VIII 장

통성경 가정예배의 분석

통성경 가정예배의 실제

필자는 조병호의 성경 통독을 위한 20마당 중 창세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해 가정 예배를 위한 성경 통독용 교재를 만들어 보았다. 만든 가정 예배용 창세기 통독을 실제로 가정에서 해보고 인터뷰한 내용은 정리해 보았다. 통성경 가정예배를 가정에서 진행하기 위한 실제 지침을 창세기 본문을 위 해 만든 예시이다. 이를 통해 5가정이 실제 가정 안에서 통성경 가정예배를 진행했다.

가정예배의 실제 1일차

통독 본문: 창세기 1장~2장 주제: 좋아, 토브		
시간	순서	내용
2분	모이기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 모이기 알람, 시간 지킴이 ⁶²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 예배 모임을 가족에게 알리고 모일 수 있다.
1분	찬양	찬송가나 CCM 또는 찬양을 맡은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할 수 있다.
1분	질문	1.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야 할까요? 두 질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0분	말씀 통독	창세기 1장 ~ 2장

⁶² 가정예배 시간 지킴이는 가정예배가 시작됨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자녀들 중에 이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벌칙이나 벌금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4분	답변 및 나누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것보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3분	감사제목 나누기	하루를 돌아보며 각자의 삶에서 감사했던 일을 한가지씩 이야기를 한다.
3분	기도	말씀에 대한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놓고 가족이 돌아가며 기도하고 신앙 가장의 기도로 마무리 한다.

2일차 (세부 안내사항은 1일차 참고)

본문: 창세기 3-5장 주제: 인간,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		
시간	순서	내용
2분	모이기	
1분	찬양	
1분	질문	1.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0분	말씀 통독	창세기 3-5장
4분	답변 및 나누기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야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3분	감사제목 나누기	
3분	기도	

3일차

본문: 창세기 6-9장 주제: 노아홍수, 하나님의 눈물		
시간	순서	내용
2분	모이기	
1분	찬양	
1분	질문	1.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 하나님은 왜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3. 노아의 세 아들 중 셈과 야벳은 왜 뒷걸음쳐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을까요?
10분	말씀 통독	창세기 6-9장

4분	답변 및 나누기	아버지 하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십니다.
3분	감사제목 나누기	
3분	기도	

4일차

본문: 창세기 10-11장 주제: 족보, 약속의 성취		
시간	순서	내용
2분	모이기	
1분	찬양	
1분	질문	1. 홍수로 인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지만 노아의 가족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2.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3. 바벨탑 사건에 들어 있는 세가지 ‘헛소리’는 무엇일까요?
10분	말씀 통독	창세기 10-11장
4분	답변 및 나누기	1. 노아의 가족은 9장 1절처럼 족보를 기록해야 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2.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3.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흠어짐을 면하자.
3분	감사제목 나누기	
3분	기도	

5일차

본문: 창세기 12-14장 주제: 아브라함, 세계 최초 야습 승리		
시간	순서	내용
2분	모이기	
1분	찬양	

1분	질문	1.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무엇이었나요? 2.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은 재물을 어떻게 처분 했나요?
10분	말씀 통독	창세기 12~14장
4분	답변 및 나누기	1.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2.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십 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이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소돔 왕의 것은 실 한 오라기도 갖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3분	감사제목 나누기	
3분	기도	

6일차

분문: 창세기 15-17장 주제: 무지개, 할례, 언약궤, 십자가		
시간	순서	내용
2분	모이기	
1분	찬양	
1분	질문	1.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2.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의 징표는 무엇인가요?
10분	말씀 통독	창세기 15-17장
4분	답변 및 나누기	1. 두려워 말라며 직접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2. 노아 홍수때 무지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궤 주셨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징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3분	감사제목 나누기	
3분	기도	

7일차

본문: 창세기 18-21장 주제: 나라는 왜 필요한가		
시간	순서	내용
2분	모이기	
1분	찬양	
1분	질문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2. 롯의 가정의 어리석은 선택 세가지는 무엇일까요? 롯, 롯의 아내, 롯의 두딸 3.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10분	말씀 통독	창세기 18~21장
4분	답변 및 나누기	1.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위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2.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는 선택,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방식으로 자손을 보는 선택 3. 하나님은 이삭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창세기 25장의 이스마엘 족보를 통해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준다.
3분	감사제목 나누기	
3분	기도	

통성경 가정예배 인터뷰

일주일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에 대한 인터뷰 질문은 아래와 같다.

가정예배 인터뷰 질문

1. 가정예배를 드린 가족은 몇 명이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연령대까지 기록)

2. 가정예배를 이전에 드린 적이 있나요?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나요?

3.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가능)
- (1) 시간의 부족하다 (2) 가족 구성원이 모이기 어렵다
- (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 예배 인도나 말씀 나눔의 부담감이 크다
- (5) 아이들이 어려서 힘들다 (6)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어렵다
4.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나요?
- (1) 매일 (2) 1주일에 1번 (3) 한달에 두세번 (4) 분기에 두세번
5. 평소 자녀와 성경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자주 주고 받나요?
- (1) 매일 기회 되는 대로 (2) 일주일에 1-2번 (3) 어쩌다 한번씩 (4) 거의 없다
6.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것이 자녀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 (1) 매우 유익하다 (2) 조금 유익하다 (3) 큰 영향이 없다 (4) 오히려 좋지 않다
7. 말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유익했나요?
- (복수 가능)
- (1)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게 됨
- (2)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말씀을 보게 됨
- (3)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됨
- (4) 말씀 전체의 흐름을 살피게 됨

8. 말씀을 읽기 전 질문의 수준은 어떠 했나요? (복수 가능)

- (1) 말씀 읽기 전 생각하기에 적당했다.
- (2) 좀더 질문이 많고 다양 했으면 좋겠다.
- (3)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 (4)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기에 어려웠다.

9.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위의 내용 중 개선하거나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10. 가정예배를 드림을 통해 느꼈던 유익한 점들을 적어주세요.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가정예배 인터뷰 답변

첫 번째 가정 인터뷰 답변

첫 번째 인터뷰는 일산소망교회 성도 가정이다.

1. 가정예배를 드린 가족은 몇 명이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연령대까지 기록)

-> 4명, 아빠(45세) 엄마(42세) 아들(18세) 딸(16세)

2. 가정예배를 이전에 드린 적이 있나요?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나요?

-> 네, 현재 한달에 1번 정도 드리고 있음

3.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가능)

- (1) 시간의 부족하다 (2) 가족 구성원이 모이기 어렵다
 (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 예배 인도나 말씀 나눔의 부담감이 크다
 (5) 아이들이 어려서 힘들다 (6)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어렵다

-> 2번 (습관이 되지 않아 익숙치 않고 정해진 약속을 하지 않아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3번 (부모는 원하나 자녀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4)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나요?

- (1) 매일 (2) 1주일에 1번 (3) 한달에 두세번 (4) 분기에 두세번

-> 4번

5) 평소 자녀와 성경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자주 주고 받나요?

- (1) 매일 기회 되는 대로 (2) 일주일에 1-2번 (3) 어쩌다 한번씩 (4) 거의 없다

-> 2번

6)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것이 자녀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 (1) 매우 유익하다 (2) 조금 유익하다 (3) 큰 영향이 없다 (4) 오히려 좋지 않다

-> 1번

7) 말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유익했나요? (복수 가능)

(1)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게 됨 (2)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말씀을 보게 됨

(3)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됨 (4) 말씀 전체의 흐름을 살피게 됨

-> 1,2,3,4번 모두

8) 말씀을 읽기 전 질문의 수준은 어떠 했나요? (복수 가능)

(1) 말씀 읽기 전 생각하기에 적당했다. (2) 좀더 질문이 많고 다양 했으면 좋겠다.

(3)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4)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기에 어려웠다.

-> 1번

9)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위의 내용 중 개선하거나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질문과 관련된 찬양이 정해져 있다면 좋겠다

-> 미리 정해진 답변이 한편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성경해석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인도자인 부모의 생각이 다르거나 방향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10) 가정예배를 드림을 통해 느꼈던 유익한 점들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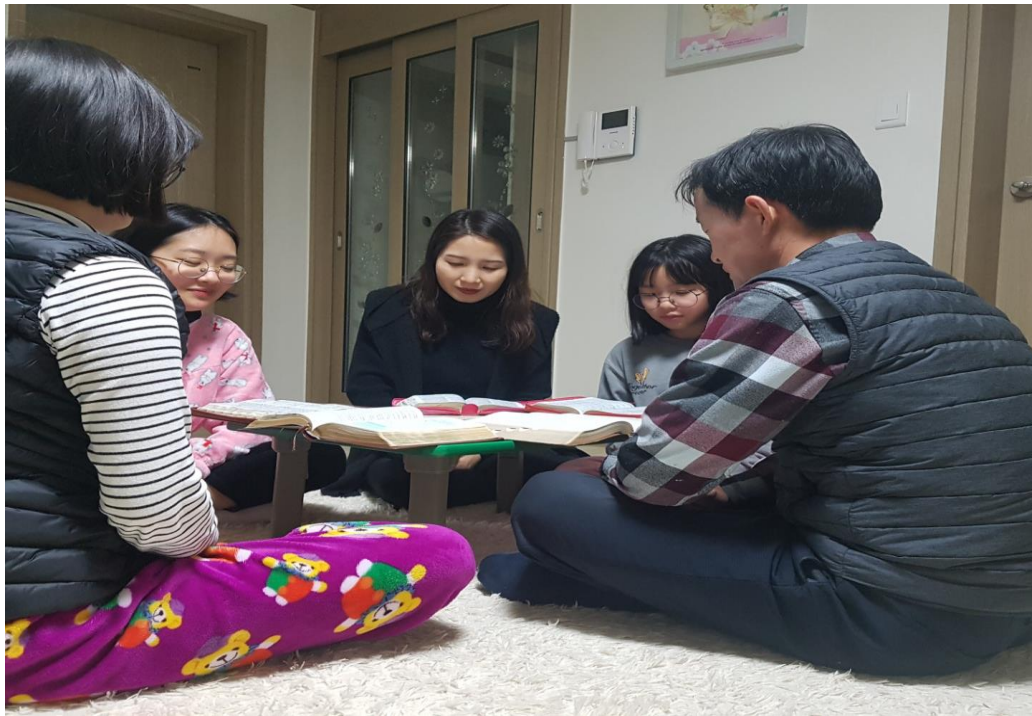
-> 부모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 좋았다.

-> 믿는 가정으로서 정체성이 다시 세워져서 좋았다.

-> 부모의 말의 권위가 세워져서 좋았다.

-> 예배 형식이 간단하고 심플해서 모여서 나누기에 부담이 없었다.

두 번째 가정 인터뷰 답변



두 번째 인터뷰는 구미제자교회 성도 가정이다.

1) 가정예배 드린 가족은 몇 명이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은 5명, 아내와 딸 3명(첫째 20세, 둘째 16세, 막내 13세)

2) 가정예배를 이전에 드린 적이 있나요? 예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나요? 가끔

3)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족 구성원이 모이기 어렵다

4)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나요?

-> 분기에 두 세번

5) 평소 자녀와 성경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자주 주고 받나요?

-> 일주일에 1-2번

6)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것이 자녀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 매우 유익하다

7) 말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유익했나요?

->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게 됨

8) 말씀을 읽기 전 질문의 수준은 어떠했나요?

-> 말씀 읽기 전 생각하기에 적당했다.

9) 가정예배를 드리는 데 위의 내용 중 개선하거나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아주 유익하며 좋았다.

10) 가정예배를 드림을 통해 느꼈던 유익한 점들을 적어주세요

->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이 많아졌다

서로 중보 기도해 줌으로 서로의 어려움과 고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세 번째 가정 인터뷰 답변

세 번째 인터뷰는 세필교회 성도 가정이다.

1) 가정예배를 드린 가족은 몇 명이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연령대까지 기록)

-> 6명이고, 구성원은 아빠, 엄마, 자녀 넷(17, 15, 13, 9살)입니다.

2) 가정예배를 이전에 드린 적이 있나요?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나요?

- >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3)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가능)

- (1) 시간의 부족하다 (2) 가족 구성원이 모이기 어렵다
- (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 예배 인도나 말씀 나눔의 부담감이 크다
- (5) 아이들이 어려서 힘들다 (6)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어렵다

4)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나요? (1) 매일

- (1) 매일 (2) 1주일에 1번 (3) 한달에 두세번 (4) 분기에 두세번

5) 평소 자녀와 성경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자주 주고 받나요?

->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1) 매일 기회 되는 대로 (2) 일주일에 1-2번 (3) 어쩌다 한번씩 (4) 거의 없다

6)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것이 자녀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1)

(1) 매우 유익하다 (2) 조금 유익하다 (3) 큰 영향이 없다 (4) 오히려 좋지 않다

7) 말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유익했나요? (복수 가능) (1)

(1)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게 됨 (2)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말씀을 보게 됨

(3)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됨 (4) 말씀 전체의 흐름을 살피게 됨

8) 말씀을 읽기 전 질문의 수준은 어떠했나요? (복수 가능) (1), (2)

(1) 말씀 읽기 전 생각하기에 적당했다. (2) 좀 더 질문이 많고 다양했으면 좋겠다.

(3)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4)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기에 어려웠다.

9)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위의 내용 중 개선하거나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질문과 나눔 시간이 4분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 대체적으로 시간이나 내용이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

10) 가정예배를 드림을 통해 느꼈던 유익한 점들을 적어주세요.

- >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좋습니다.
- > 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 > 기준이 부모가 아니라, 말씀이서 함께 순종을 배우기에 좋습니다.
- >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시간을 놓치기가 쉬운데, 누군가에게 ‘시간지킴이’ 역할을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을 해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생각하면서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정 인터뷰 답변



네번째 인터뷰는 부천 복된교회 성도 가정이다.

1) 가정예배를 드린 가족은 몇 명이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연령대까지 기록)

-> 가족 - 5명 아빠, 엄마, 딸1(13세), 딸2(11세), 딸3(6세)

2) 가정예배를 이전에 드린 적이 있나요?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나요?

-> 이전에도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5)

- (1) 시간의 부족하다 (2) 가족 구성원이 모이기 어렵다
 (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 예배 인도나 말씀 나눔의 부담감이 크다
 (5) 아이들이 어려서 힘들다 (6)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어렵다

4)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나요?

- (1) 매일 (2) 1주일에 1번 (3) 한달에 두세번 (4) 분기에 두세번

5) 평소 자녀와 성경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자주 주고 받나요?(2)

- (1) 매일 기회 되는 데로 (2) 일주일에 1-2번 (3) 어쩌다 한번씩 (4) 거의 없다

6)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것이 자녀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1)

- (1) 매우 유익하다 (2) 조금 유익하다 (3) 큰 영향이 없다 (4) 오히려 좋지 않다

7) 말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유익했나요? (1,2)

(1)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게 됨 (2)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말씀을 보게 됨

(3)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됨 (4) 말씀 전체의 흐름을 살피게 됨

8) 말씀을 읽기 전 질문의 수준은 어떠했나요? (2)

(1) 말씀 읽기 전 생각하기에 적당했다. (2) 좀더 질문이 많고 다양했으면 좋겠다.

(3)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4)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기에 어려웠다.

9)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위의 내용 중 개선하거나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기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질문을 생각하고 답하는 과정뿐만 간단한 활동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10) 가정예배를 드림을 통해 느꼈던 유익한 점들을 적어주세요.

-> 가족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직은 막내가 어려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한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림을 통해 아이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섯번째 인터뷰는 순천 서남교회 성도 가정이다.

1) 가정예배를 드린 가족은 몇 명이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4명, 아빠, 엄마, 11살 딸, 7살 딸

2) 가정예배를 이전에 드린 적이 있나요?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나요?

예. 지금도 드립니다.

3)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가능)

- (1) 시간의 부족하다 (2) 가족 구성원이 모이기 어렵다
- (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 예배 인도나 말씀 나눔의 부담감이 크다
- (5) 아이들이 어려서 힘들다 (6)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어렵다

4)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나요?

- (1) 매일 (2) 1주일에 1번 (3) 한달에 두세번 (4) 분기에 두세번

5) 평소 자녀와 성경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자주 주고 받나요?

- (1) 매일 기회 되는 데로 (2) 일주일에 1-2번 (3) 어쩌다 한번씩 (4) 거의 없다

6)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것이 자녀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 (1) 매우 유익하다 (2) 조금 유익하다 (3) 큰 영향이 없다 (4) 오히려 좋지 않다

7) 말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유익했나요?

(1,2,3)

- (1)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게 됨
- (2)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말씀을 보게 됨
- (3)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됨 (4) 말씀 전체의 흐름을 살피게 됨

8) 말씀을 읽기 전 질문의 수준은 어떠했나요? (복수 가능)

- (1) 말씀 읽기 전 생각하기에 적당했다.
- (2) 좀더 질문이 많고 다양했으면 좋겠다.
- (3)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 (4)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기에 어려웠다.

9)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위의 내용 중 개선하거나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질문이 좀 더 세분화되어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질문들에서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쪽으로 유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라는 어떤 정의보다, 함께 말씀 읽기, 성경 이야기 나누기라는 타이틀을 정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10) 가정예배를 드림을 통해 느꼈던 유익한 점들을 적어주세요.

아이들과 성경이야기를 통하여 그 아이들의 생각들을 읽어볼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함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 같다.

통성경 가정예배 인터뷰 분석

가족 구성원 및 가정예배의 실태

인터뷰를 진행한 가정들 대부분은 가정예배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분기에 한번 드리는 가정도 있고 많이 드려야 매달 1-2회 정도 드리고 있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명맥은 이어질 수 있지만 가정예배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계속 이어지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자녀들이 가정예배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녀들이 너무 어릴 경우에 집중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질문에 대한 이해와 대답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으로 겪는 부분들이다. 이 문제점을 극복해야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고 통성경 성경통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가정예배의 숙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성경과 가정예배의 결합

가정예배가 계속 이어질 때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통성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예배의 지속은 가정예배와 통성경 결합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터뷰한 가정의 대부분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달에 1-2번이나 분기에 한번 드리기 때문에 그때 가정에서 나뉘지는 말씀의 본문은 예배 인도자의 즉흥적인 본문 선택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인터뷰한 가정 뿐만 아니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가정 예배의 현실이 이렇다.

통성경 가정예배의 장점은 매일 매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이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매일 말씀을 읽기에 1년 1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체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읽을 수 있다. 가정예배를 통성경으로 드리고자 할 때 어떤 날에 가정예배를 드리더라도 미리 정해진 365일 통성경 가정예배 본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조병호의 365일 통성경 본문을 가정에서 보고 해당 요일의 말씀과 질문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크다. 통성경 가정예배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제점 해결 방안에서 살펴볼 것이다.

통성경 가정예배에서 질문

인터뷰한 모든 가정에서 질문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더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함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답을 찾기 위해 말씀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통성경이 갖고 있는 장점이 발휘되는데 질문이 유익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질문하고 답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질문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말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기 어렵고, 질문의 수준을 자녀들에게 맞추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그래서 질문이 더 많아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가정도 있었다.

가정예배에서 말씀에 대한 질문이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하다. 말씀을 읽기 전에 질문을 받게 되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여러 성경공부 교재들이 단답식의 답을 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통성경은 성경 자체를 통해서 질문과 답을 찾기에 말씀 중심적이며 본문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이삭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창세기 25장의 이스마엘 족보를 통해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줍니다.” 라고 답을 제시했다. 단순히 이스마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단편적인 성경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건 전체를 놓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찾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이스마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 전체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다. 질문이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과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정예배의 인도자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에 맞는 질문을 미리 선택해 가정예배에서 함께 나눈다면 가정의 맞춤형 질문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을 통해 자녀들의 말씀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 이것이 가정예배를 매일 지속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통성경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문제점

통성경 가정예배 인터뷰를 통해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은 첫 번째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로 질문의 수준과 응답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오늘날 쉽지 않다. 가족 모두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시간을 내기 쉽지 않지만 자녀들 또한 중학교 이상만 되면 학원에 가 늦은 시간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의무감을 갖고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미취학으로 어릴 때 가정예배를 드리면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된 가정예배가 자녀의 삶에 자리 잡게 된다면 갈수록 쉬워질 수밖에 없다. 가족이 시간을 맞추는 것 또한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을 맞춰 나간다면 갈수록 쉬워질 것이다.

필자의 가정도 첫째에 가정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어려서 찬송가를 부르기 힘들어 했다. 그러나 몇 년의 시간이 쌓이자 이제는 웬만한 찬송가 1절은 외워서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반복된 훈련의 힘일 것이다. 학원에 가는 자녀들도 아침에 시간을 내든지 저녁에 시간을 내든지 함께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통성경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은 가정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다. 교회가 가정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들이 속한 교육 부서에서도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야 한다. 교회가 새롭게 한해를 준비할 때 가정예배 캠페인을 벌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한해로 선포하고 함께 하는 것도 큰 동기 부여와 힘이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 가정예배의 말씀 본문으로 담임목사와 각 교육부서의 교역자가 예배 말씀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한다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미 읽은 생각한 말씀이기에 가족 구성원이 더 흥미와 집중력을 갖고 말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캠페인을 벌인다면 통성경 가정예배를 위한 안내 가이드를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면 가정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동참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다. 그리고 1년 1독 한 가정에 대해서 교회 광고 및 간증을 할 수도 있고 교회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통성경 가정예배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가정의 부모들이 참여해 강의를 들음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제 VIII 장

통성경 가정예배 평가

통성경 가정예배의 장점

가정예배를 통한 통성경 실천

통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며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느냐는 것이다. 통성경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받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은 성경의 일부분이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한권의 책이다. 책의 일부분만 보고 책을 다 읽었다 할 수 없고, 책의 내용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그 가운데 담긴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성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연속성이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전체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읽어 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논해왔다. 가정예배의 장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성경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정예배와 통성경 모두 꾸준히 이어질 때 장점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성이 필요한 가정예배와 통성경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지속성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예배와 통성경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읽는 말씀을 통성경으로 읽어나갈 때 가정예배의 유익과 통성경의 유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온 가족 말씀 읽기

개인이 매일 큐티나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통성경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 대를 이은 신앙의 유산은 개인의 경건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신앙으로 모일 때 가능하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나누며 기도할 때에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며 신앙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론에 얘기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이 전수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고, 가정예배를 통해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이들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고 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닦이게 된다.

가족 간의 대화와 권위

모든 인터뷰 응답자들이 통성경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졌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응답했다. 신앙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며 직접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통성경 가정예배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예배의

인도를 부모가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다. 부모의 권위에 대해 응답한 가정도 있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신앙으로 지도하기에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기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질문을 통한 유익

통성경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이어지는 것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통성경 가정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동기 부여 방법을 설명했지만 모두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러나 통성경 가정예배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때 가정예배가 힘을 갖고 지속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질문이다. 통성경 가정예배에서 말씀은 단순히 분량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질문을 통해 자녀들이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질문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며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될 수 있다. 질문은 호기심으로 부터 시작된다. 어린시절 자녀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다.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되어 자녀들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질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예배 시간이 기다려 지며 이 시간을 통해 신앙도 자라나게 된다.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단답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질문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수 있다.

통성경 가정예배 평가 및 결론

교회의 신앙 훈련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더이상 예전처럼 모이지 않고 양육 프로그램은 참여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마저도 이미 참석한 사람이 반복해서 다시 듣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학교는 어떠한가? 교육부 자체가 없는 교회가 많았고 있고 갈수록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출석하는 자녀들도 부모의 강요와 습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교육부서를 통해 신앙 훈련을 받은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세상의 일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예배를 제시했다.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다.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며 늘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잡을 수 있다. 자녀들이 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녀가 자라나게 된다. 이러한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교회안에서의 신앙 생활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를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놓였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⁶³ 교회에 모여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 예배의 처소이며 부모가 직접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다. 자녀의 신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국 교회는 이 사태를 통해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모를 교육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는데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⁴ 교회에서 절기 및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앙 훈련에 집중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관계 맺고 지속적으로 부모를 훈련시키는 일을 교회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어서 통성경을 가정예배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을 정해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온 가족이 모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자녀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습관이 되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성경으로 읽는 것이다. 통성경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연결해 볼 수 있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볼 수 있다. 말씀 읽기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쉽지

⁶³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8031500004?input=1179m> (2020년3월10일 접속).

⁶⁴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부모에 대한 교육도 교회라는 장소와 시간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와 부모 신앙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예배에 대한 부모 강의를 촬영 후 편집해 가정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부모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성화해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들을 묶어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곳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갖게 되는 질문과 답변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다.

않다. 조병호는 통성경으로 1독을 위해 성경을 7개의 트랙과 20개의 마당 그리고 40과로 나누어 365일 읽을 수 있게 만들었고 가정예배를 통성경으로 1년 동안 충실히 하게 된다면 성경을 1독 할 수 있게 된다. 조병호는 자신의 나이 만큼 성경을 통독해야 한다고 도전한다. 매일의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독한다면 가능한 일이 된다. 이러한 통독이 쌓이고 쌓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진다. 성경을 전체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게 되고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처럼 매일의 가정예배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나 갈 것이다.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교회에서 통성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가 통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통성경으로 진행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유튜브의 통성경 채널을 통해서 조병호의 통성경과 365일 말씀을 읽는 강의를 듣고 적용하는 것도 좋고 성경 통독에 대한 세미나를 여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부모가 먼저 통성경에 대해 이해하고 질문을 만들어 자녀와 함께 묻고 답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의 가정예배는 이러한 부모의 열심과 자녀들의 호기심을 통한 참여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예배와 통성경은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가치가 크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때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잡고 매일 통성경을 읽을 때 1독을 하게 되며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은 얇은 책이며 성경은 쉬운 책이라고 도전한다. 이 말은 통성경으로 매일 읽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다. 어떻게 해야 가정예배 가운데 통성경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통한 통성경 가정예배를 통해 설명했다. 성경을 주어진 분량만 읽고 그치거나 단답식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읽는 것은 자녀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기 어렵고 성경 읽기가 괴로운 시간이 되기 쉽다. 그러나 질문이 갖고 있는 유익함이 통성경 가정예배에 활용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았다.

통성경 자체가 시간과 공간과 인물을 결합해 읽는 것이며 이렇게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들을 통성경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자녀들에게 던지고 말씀을 읽으면 더욱 집중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먼저 말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읽게 되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자녀들이 매일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통성경으로 읽는 말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문을 통한 통성경 가정예배는 자녀들이 말씀에 대해 더 깊은 흥미를 갖게 되며 이것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마지막으로 통성경 가정예배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점은 자신이 말씀을 통해 받은 생각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는 것도 신앙에 유익하다. 물론 자녀들이 어리다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들으며 서로의 신앙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묵상이 깊어지면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가정예배에서 자녀들의 질문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정예배의 이러한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자녀들은

생생하게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자리가 된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많은 교회들이 깨닫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라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많은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드려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한다. 세상의 그 무엇이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와 통로가 가정예배다. 누구에게 맡기고 누가 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그 장을 열고 부모가 앞장 서서 해나가야 한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모가 발벗고 나서서 좋은 학교와 학원, 강사, 인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온갖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한 부모라면 분명 통성경 가정예배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통성경 가정예배가 널리 확산되고 부모와 자녀들까지 1년 1독 성경을 읽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통성경으로 알아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며 말씀 가운데 서게 되길 소망한다.

참고 문헌

번역서적

- 도널드 휘트니. *오늘부터, 가정 예배*.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 슈몰르 보테악. *유태인 가족대화*. 정수지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 에버하르트 플라테.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강미경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2.
- 제임스 스미스. *습관이 영성이다*. 박세혁 역. 서울: 비아토르, 2018.
- 제임스 알렉산더.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임원종 역. 서울: 미션월드, 2003

한국어서적

- 박신용. *가정예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생명의 양식, 2018.
- 백홍영. *엄마, 아빠! 가정예배 안 드려요?*. 서울: 예키즈, 2015.
-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유해무 외 7인.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생명의 양식, 2018.
- 이지성. *에이트*. 서울: 차이정원, 2019.
- 전성수. *유태인 엄마처럼*. 서울: 국민출판, 2014.
-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성경 통독*.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성경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유태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2*. 서울: 통독원, 2017.

조병호. *통하는 영적 예배*. 서울: 통독원, 2018.

조병호. *통숲1*. 서울: 통독원, 2019.

함성환. *현대교육과 가정교육*. 서울: 그루터기, 1984.

잡지, 기타간행물

신형섭. “가정예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교육교회, 2019.

웹사이트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31/>.

http://www.cserc.or.kr/sub2_6_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8031500004?input=1179m>.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aekwang Kim

Place and Date of Birth: MaSan, South Korea, September 25, 1978

Parent`s Names: Jungjin Kim and Jeonghui Le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MaeSan High School 58, Yeongdong-gil, Suncheon-si, Jeollanam-do, Korea	Diploma	Feb 21, 1997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Korea	Th.B.	Feb 12, 2004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Korea	M.div	Feb 14, 200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aekwang Kim

Name typed

March 14, 2020

Date